

#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적응력 향상 방안연구

한지은, 나건

IDAS, 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

## A Study on the Enhancement of Social Adapt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Jee-Eun Han, Ken Nah

IDAS, Hongik University

요 약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사회적응 문제는 복지적인 차원을 넘어 통일준비적 차원으로써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사회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경제중심의 지원정책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률이 향상되었으나 동시에 문화적 이해와 정체성 형성이 결여 된 상태에서의 취업률 향상은 또다시 사회부적응과 적응실패의 문제로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과 그룹토론 및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제적 자립’ 이외에 ‘사회적 자립’의 중요성이 검증되었으며, 사회적응과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된 요인은 사회성형성의 기본이 되는 ‘관계’임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력을 고양시킬 수 있는 정책 과제로 남북한 시민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환경과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언하는 바이다. 이는, 경제적 자립만으로는 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남한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키는 결과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원’ 정책 효과를 높이는 결과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후속 연구로써 ‘사회적 지지’ 형성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보완되어야 하겠다.

주제어 :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사회적 자립, 사회통합, 정체성

**Abstract** The problem of social adapt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as its core significance shifted from welfare to the preparatory stage of United Korea. Hence, this research tries to comprehend the 'factors that enhance their social adaptation'. For this end, by theoretically considering, support resources centered around economic goals did indeed increase the employment rate, but the 'premature social adaptation' did not help them form their own social identity. This led the employment to become another form of social failure and difficulty in social adaptation. Furthermore, by going through interview, the importance of 'social dependence' is emphasized and it was shown that it was 'relationship' that affects both social adaptation and difficulty in social adaptation. Accordingly, this research suggests that it is vital to make a communicative environment in which South and North Korean citizens can freely communicate. This will not only lead to enhancement of social adaptation to South Korean society, unsolvable by economic independence, but it will also lead to more effective 'economic support' policies.

**Key Words** : North Korean Defector, Social Adaptation, Social Integration, Social Self-Reliance, Social Identity

Received 30 December 2016, Revised 31 January 2017  
Accepted 20 February 2017, Published 28 February 2017  
Corresponding Author: Ken Nah (IDAS, Hongik University)  
Email: knahidas@gmail.com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1738-1916

## 1. 연구배경

우리는 통일을 준비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미래에 어느 날 갑자기 한민족이 되는 통일이 아니라 이미 약 3만 명의 북한이탈주민들과 어울려 살고 있으며, 이는 통일이 현재 진행 중임을 의미한다. 또한 매 년 천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으로 입국하고 있으며 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빠르게 증가 할 것이라 예상된다[1].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사회 적응문제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면서 지속적으로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해 적잖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그들 대부분의 생활은 많은 어려움과 부적응을 호소하고 있으며, 남한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남한사회를 재이탈하여 제3국으로 이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2].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진입 후 일상에서 겪게 되는 그들의 직접적인 경험을 토대로 남한사회적응 문제를 진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이론적 고찰을 선행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현황과 문제를 파악하고, 3장에서 심층면접조사를 통한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 적응과정에서 겪게 되는 'Pain Point'와 적응에 필요로 하는 'Needs'를 발견하고자 하며, 사회 적응 단계에서 '적응을 저해하는 요소'와 '적응을 향상시키는 요소'를 파악하여, 지원정책의 방향성 도출하고자 한다.

'경제적 자립'이라는 공급자 중심의 관점보다 수요자 중심의 '사회적 자립' 관점으로 지원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의 시민으로 더불어 살 수 있는 가능성과 삶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해결방식을 찾는 것[3]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앞으로 통일이 되어 남북한 주민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현재 남한사회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적응문제를 개선하는 것은 앞으로 통일과정과 통일 후에 지급하게 될 유무형의 사회적 기회비용에 대한 상충을 최소화하는데 순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4].

##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론적 이해

### 2.1 북한이탈주민 의미와 역할 변화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원인이 다양해지고, 입국 대상에

있어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 후반 급격히 증가했던 북한이탈주민들의 탈북 사유는 대부분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생계와 경제적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최근에는 더 나은 삶의 조건을 위한 이주 성격이 강해지고 있다. 또한 여성의 비율과 경제활동이 가능한 청장년층의 입국이 증가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계층도 교수, 의사, 노동자, 학생, 군인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5]. 이와 같이 다양한 계층의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 들어와 가정, 지역사회, 직장 및 여러 단체 속에서 다양한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뿐만 아니라 통일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한 사회를 넘어 북한에 남은 가족, 이웃과 전화통화, 송금 등을 통해 연계를 맺으며 추상적인 실체였던 남한이 현실적으로 북한사회와 주민들의 생활과 의식 속에 내면화 시키는 역할로 확장 되고 있다[6].

즉, 북한이탈주민들은 이제, 단순히 남한에 거주하는 반쪽 동포가 아니라 북한사회를 밑으로부터 변화시키고, 남한사회가 통일 이후 겪게 될 여러 제반 상황들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남과 북의 통일을 위한 실질적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7].

### 2.2 북한이탈과 남한정착의 의미와 재사회화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로 진입하게 되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3국에서 불법체류자로서 다양한 형태의 시간을 거친 후 남한 행을 선택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들은 가족과 생이별한 이산자이자, 고향을 잃은 실향민이 되었으며, 뜻을 같이 했던 동무에게는 변절자, 조국에는 반역자가 되어 지금껏 이어오던 삶의 단절과 함께 재사회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 생애 초기화 단계로 되돌아간다. 즉, '북한이탈'은 단순히 국경을 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루었던 모든 사회적 성취와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다. 살기 위해 죽기를 각오해야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감수해야할 육체적 고통과 위협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공포는 상흔으로 남아 북한이탈주민들의 심리적, 정서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8].

이와 같이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을 이탈·도피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사회에 들어온다. 두 체제를 경험하며 남한사람도 북한사람도 아닌 탈북자라는 경계인으로 살면서 새롭고 익숙하지 못한 문화권에서 남한사회에 적응하기위한 '재사회화'를 겪

게 된다[9]. 이는 북한에서 살아오면서 몸에 배었던 사상과 사고패턴, 자의식, 이 모든 요소들이 새로운 환경인 남한사회에서 많은 차이점을 극복하면서 서서히 원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되는 과정을 의미한다[10].

이러한 과정 속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는 문제를 극복해가면서 가치관을 스스로 바꾸기도 하지만 가치관이 형성되지 못한 채 사회적 자립에 실패하게 되는 경우 스스로 무너지게 되며, 이러한 경우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11].

### 2.3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과 사회적응

남한 정부의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원정책은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보호’중심에서 ‘자립’중심으로 그 목적을 전환하였고, 여러 형태의 지원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해외 공간 보호 및 국내 이송 이후 보호결정이 이루어지면, 12주 동안 하나원에서 초기 적응교육을 하고, 이후 5년간의 거주지 보호가 진행된다. 하나원 퇴소 이후에는 거주지를 배정받아 지역적응교육 지원시설인 하나센터에서 3주간의 적응교육 및 사후 지원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한 협력·지원으로 전문 상담사 100명, 거주지·취업을 지원하는 보호담당관과 정착도우미 1,500여명이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12]. 이러한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의 정착 지원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사회 진입 이후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은 문화적인 이질감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다양한 형태의 사회 부적응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적응이란, 개체의 환경에 대한 욕구 처리과정을 뜻하며, 성공적으로 처리 되었을 때 적응이라 하고 실패 하였을 때는 부적응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적응에 대한 개념은 신체적·심리적·사회적으로 통합된 개념으로 이해되고, 특히 사회적 적응은 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사회화 욕구를 반영하며 사회규범, 역할인식, 윤리적 가치 등을 내포하는 것으로 사회적 활동의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고 일상을 관리하는 능력에 대한 개념이다[13].

다시 말해,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보장이 기본이 될 것이지만, 사회적응을 위해서는 금전적 보장 이외에 정신적 건강, 인간관계나 사회적 활동, 문화 등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하며, ‘조속한 자립’이라는 목표 아래, 경제적 지원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사회적응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14]. 적응이란 개인이 단순히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는 것을 넘어 보다 능동적으로 행하는 다양한 활동과 환경과의 상호작용까지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 2.4 선행연구 시사점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은 이탈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형성되는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남한사회에 들어오게 되며, 남한사회적응을 위해서는 재사회화 과정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남한사회에는 혈연·지연 등의 연고가 없기 때문에 재사회화의 근간이 되는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형성해나가기 어려운 상태이다.

또한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이해가 결여 된 정책은 조속한 정착을 목표로 ‘경제적 자립’ 중심의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취업률이 높아지는 고무적 현상을 보이고는 있지만, 사회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높아진 취업률은 사회부적응으로 인한 재이탈과 같은 또 다른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정부 지원과 대부분의 학술적 연구는 경제적 관점으로 교육과 취업향상 측면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남한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원인은 경제적인 문제보다 문화적응 실패와 사회적 고립 등 정신적 문제라고 분석되어지고 있다[15].

재사회화가 되지 않은 상태의 취업으로 인해 사회적응 실패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할 경우, 적응에 대한 자신감과 남한사회 일원으로서의 자존감이 저하되는 문제로 이어지게 되어 결국, 적응의지를 결여시키게 되고 이는 또 다른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16].

이주민과 국민의 욕구가 서로 상충되어 사회적 갈등이 빚어지지 않도록 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정책이 발전적 대안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수요자의 필요에 얼마나 적절하며, 사회적응에 얼마나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재검토와 남한사회 적응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17].

따라서 3장에서는 공급자의 입장이 아닌 사회 부적응의 문제를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경험으로부터 부적응 원인과 적응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요소를 도출하기 위한 실증연구를 하고자 한다.

## 3. 실증연구

### 3.1 연구설계

다양한 상황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어 남한사회에 진입· 정착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적응과 부적응의 요소를 도출하고자 인터뷰어와 인터뷰대상자 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Focused Group Interview>를 진행하였다.

또한 특정한 인원을 심층 조사하여 실제 생활에 근거한 경험에서 문제의식을 이끌어내는 질적 연구 방식으로써 피조사자의 선정이 중요하므로 동질감 속에서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하도록 세대의 범위를 다가올 통일시대를 직접 살아가거나 준비해야하는 청년층으로 국한시켰다. 청년세대는 기성세대보다 현 문화에 대한 이해와 변화의 가능성이 높은 특성이 있으므로 이데올로기적 차원을 넘어서, 다가올 통일의 시점에 발생 가능할 사회부적응 문제의 원인을 예상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북한에서 장마당 세대라고 일컫는 청년의 연령층은 통상적으로 20세~35세를 의미한다[18]. 따라서 연구대상은 20~35세 연령층의 북한이탈청년 중 남한사회에서 2년 이상의 재사회화 과정을 겪었고, 현재 사회적응을 통해 남한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청년을 전제로 하여, 대안학교의 교사와 북한이탈청년의 사회적 자립을 돕는 사회적 기업 종사자에게 추천을 받았다.

추천된 북한이탈청년들 중에서 체류시점 단계별로 겪게 되는 경험에 대하여 다양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남한사회 정착·적응기간 '2-3년차, 4-6년차, 7-9년차, 10년차 이상'의 4범주로 분류하였고, 각 기간마다 2인씩 연령과 성별을 고르게 선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최종 F.G.I를 위해 선정된 피조사자는 아래 <Table 1>과 같다.

<Table1> F.G.I Subject Roster

Sex	Age	Entry	Period	Present Situation
M1	35	2004	12	Social Enterprise CEO
M2	31	2006	10	Business Preparation
M3	26	2008	08	Precollege
F1	31	2008	08	Barista
F2	22	2010	06	Alternative School
F3	26	2012	04	Nursing College
M4	28	2013	03	Office Worker
F5	24	2013	03	Precollege

### 3.2 연구내용

남한사회에 진입하여 정착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개인

적으로 겪은 <적응을 저해하는 요인>과 <적응력을 향상시킨 요인>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토론 참여자들의 남한사회에서 거주한 기간이 상이하고, 적응해야하는 상황이 달랐지만 토론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사회적응에 특별히 어려움이나 만족스러움을 겪게 되는 시점은 크게 2단계로 분류할 수 있었다. <1단계: 하나원에서 나와 거주지를 정하고, 지역사회에 진입하여 적응훈련을 받는 시기>와 <2단계: 사회적응 교육을 마치고 취업이나 학업을 선택하고 사회로 진출한 이후의 시기>이다.

따라서 그룹토론의 조사내용을 '지역사회진입과 적응훈련시기' 그리고, '진로선택과 사회적응시기'로 구분하여 시점별로 경험한 상황과 만족·불만족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정리하였다. 도출된 내용을 종합했을 때 특이사항은 사회부적응을 유발하는 요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사건적 현상이기보다 <두려움, 좌절감, 고립감, 막막함> 등을 느끼게 되는 순간들로써 정신적인 영향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부정적 요인은 <Table 2>와 같이 시점별로 정신적 어려움을 느낀 순간들에 대하여 인터뷰대상자들이 표현한 감정언어와 함께 정리하였으며, 사회적응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던 경험은 <Table 3>과 같이 만족감의 원인이 된 상황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Table 2> F.G.I - Negative Influence

Being included in the local community	Emotion
When I first received house key from and entered the empty house, there was nothing at all - I drank only the tap water for a while.	Desolation Loneliness
From the kitchen tools, basic furniture to the necessities, I did not know where to buy them. I used them by picking up abandoned refrigerators and furniture.	Dread Loneliness
I wandered on the streets to home. Everything was unfamiliar to me. The routine life was filled with challenges and difficulties, but I had no one to ask for advice.	Dread Loneliness
At the start of my entering the society, I got to do something, but I did not know what to start with.	Desolation
When I first introduced myself, I concealed my background as a North Korean, and maintaining a continuous relationship was difficult.	Loneliness
Time passed, but I did not, could not know who was living the next door. I felt the prejudice of my neighbors.	Desolation
I had to receive training but I had no information ; and the course was given under the South Korean premise who already possess basic knowledge	Dread Frustration
When using computer, and when hearing routine words filled up with loan words, I felt frustrated.	Dread

The stage of choosing my career	
When I had to submit my resume and application form to start working but when I felt there was no one that could help me.	Frustration
When I wanted to follow my academics, but I could not stop my part-time job, because of my family still in North Korea.	Loneliness
When I wanted to apply to universities, but I did not know how to apply, did not know my academic level, and when I had to choose my school and major without any standard or information.	Desolation Dread
When I had to choose my career and academics without any understanding or aim.	Dread Desolation
When I suffered from no economic support and zero wage, because I had to temporarily stop working to prepare for college admission.	Desolation Dread
When I could not get along as a part of the group and isolated because I could not continue conversation with other staff.	Loneliness
When I had to change my workplaces without any ultimate goal (dream), relying only upon Hana Center.	Dread Frustration
When there was no one to say me 'it's okay' when I failed, when I want to know how my South Korean peer groups are doing, but when I find I do not have any information.	Dread
When I want to run my own business like restaurant due to maladjustment, but when I could not try at all because I lack understanding on South Korean commerce and culture.	Frustration Desolation

<Table 3> F.G.I - Positive Influence

Being included in the local community	
Meeting with my peer neighbors - I started to prepare for the university because I learned about the necessity to study and gain information upon life with choices.	
I started to go to the church - I began to have friends in my class, and by sharing my difficulties in life, I began to form willingness and confidence for social adaptation.	
I started to begin my part time job as Chinese interpreter in international marriage. - when I started to feel sense of fulfillment, my desire to follow my academics grew.	
Personal meeting with staffs of Hana Center - the advice I got was not from national support, but a sincere explanation upon academics and majors that suit my personal tastes.	
I read books recommended by NIS. I started to dream of becoming a nurse, and I started to prepare for university.	
I began to get counseling from my pastor - my fear for people and thought for suicide began to subside, and I started to go outside of my home. I started to find my emotional stability.	
The stage of choosing my career	
I was admitted to alternative school. I made South Korean friends in similar circumstances, and my passion for life in South Korea increased.	
After begin admitted to university, I had a roommate. It was my first time of making a friend relationship, not the one-sided support I always received, but a mutually sharing relationship.	

Meeting the media class teacher - As I began to be interested in South Korean culture and as I actively participated in media class, I formed my dream as a broadcasting producer. With ultimate goals in mind, I found studies interesting.
At the second workplace, I spoke out that I am from North Korea. Fortunately, bias subsided, the eyes upon me became warmer. I could get help when I could not figure out, and I could dedicate myself more into the works.
Finding position in Social Enterprise - Though the wage is relatively low, I feel happier because I now have coworkers without prejudice. Thanks to this experience, I envision of being a person who can benefit the society, from a person who wanted help form the society. This vision has made my career life happier and fruitful.

#### 4. 조사연구결과

처음 남한사회 진입 시 함께 이탈한 가족이 있거나 먼저 남한사회에 정착한 지인이 있을 때, 적응 초반 두려움보다 기대감이 컸으며, 조사대상자 모두 적응 만족도가 향상되는 시점을 '이웃과 교류가 시작되었을 때'와 '룸메이트가 생겼을 때', '교회나 동아리에 소속되어 친구가 생겼을 때'라고 하였고, 이를 통해 '관계'의 형성이 첫 번째 긍정 요인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때의 '관계'란 하나센터 직원이나 사회에서 만난 직장동료와 같이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거나 이해관계가 엮인 '관계'가 아닌 양방향 소통을 통해 교감이 가능한 '관계'를 의미하였다. 그 외에도 '책을 통해 하고 싶은 공부를 찾았을 때', '아르바이트를 통해 성취감을 느꼈을 때', '미디어 수업을 통해 꿈이 생겼을 때'에 각각 실패한 상황을 딛고 재도전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형성되며,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시점으로 꼽았고 이를 통해 '목표의식과 성취를 위한 동기'형성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남한사회 부적응(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첫 번째는 긍정 요인과 마찬가지로 '관계'의 문제이며, 두 번째는 '반복되는 실패'의 문제였다. '반복되는 실패'문제는 또한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이 '관계'인 경우가 많았으며, 실패를 했을 때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로 이어지는 경우도 사회적 지지를 형성해 줄 '관계의 부재' 문제로 연결되고 있었다. '관계'의 문제는 공통적으로 처음 두려움과 좌절을 경험하게 만드는 요인이며, 남한사회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자신의 의지로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므로 인해 고립감의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었다. 실패를 경험했

을 때에도 자신감을 찾고, 재도전을 할 수 있도록 의지를 심어줄 '사회적 지지'가 공급되지 않을 경우, 소외감을 느끼고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존감을 상실하게 되며, 이러한 무력감으로 인해 사회적응에 실패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즉, 건강한 관계의 형성 여부는 사회적응을 할 수 있는 의지 형성의 문제로 직결되며, 적응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근본 방안이 되는 것이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한 문헌연구와 심층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론적 고찰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적인 자립이 무엇보다 시급하지만 남한문화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관계형성을 통한 정신적 안정 없이 시작된 사회생활은 오히려 부적응을 낳고 실패와 좌절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실증연구를 통해 남한사회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과 더불어 '사회적 자립'이 함께 필요함과 '사회적 자립'을 위해서는 '교감이 가능한 관계'를 구축하여 '사회적 지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검증하였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은 조속한 자립을 위해 '경제적 지원'의 양적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남한적응을 돕기 위한 하나센터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 자립'을 위한 교류의 장으로써 역할을 담당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 지지'를 형성 할 수 있는 환경의 부재와 남한주민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교육의 부재를 문제로 제시하며, 정부의 지원정책은 경제적 자립을 지지함과 동시에 북한의 이주민과 남한의 원주민이 하나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일까지 포함해야함을 제언한다.

또한 '사회적 자립'을 위하여 남과 북의 주민들이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고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남·북한 주민간의 교류가 형성될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교류의 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는 남·북한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통일사회를 향한 공동의 가치를 함께 그려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예상된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의 일원으로 소속감을 가

지고 사회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역사회가 일상생활 속 관계형성이 가능한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면, 경제적 자립만으로는 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남한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키는 결과뿐 만아니라 '경제적 지원' 정책 효과를 높이는 결과에도 일조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검증 된 '사회적 지지' 형성의 중요성에 대한 후속 연구로써 '사회적 지지' 형성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보완되어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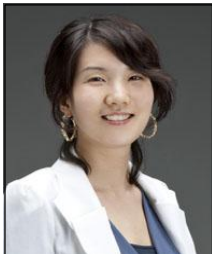
## REFERENCES

- [1] S. Y. Aan, "Study on the support Policy for North Korean Defectors", Ph.D. dissertation, p.165, ChonNam University, 2013.
- [2] S. H. Go, "Local administrative system for the socially disadvantaged",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Vol. 25, No. 4, p.14, 2011.
- [3] The Institute of the Humanities for Unification, "Integration Narrative of healing over the separated system", p.29, Suninbook, 2015.
- [4] G. S. Kim, "The relation between social elimination and social adjustment by North Korean refugees", Master dissertation, p.3, CheongJu University, 2013.
- [5] J. C. Bae, "The Type of the Subjective Perception on the Social Adjust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Master dissertation, p.2, KyungNam University, 2010.
- [6] J. R. Goak, "Study on the communicative activities and social adaptation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Ph.D. dissertation, p.11,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0.
- [7] Y. A. Kim, "The research for North Korean defectors' rer socialization process", Master dissertation, p.12,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5.
- [8] K. S. Min, "Study on the acculturation stress of defectors from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aster dissertation, p.14, HanSei University, 2015.
- [9] I. A. Hyen, "Study on the political re- socialization process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Ph.D. dissertation, pp.161-162, Ewha Woman

University, 2013.

- [10] E. S. Park,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North Korean refugees' maladaptation in the workplace", Ph.D. dissertation, p.6, SoongSil University, 2014.
- [11] S. G. Kim, "A Study on the Support Policy of North Korean Defectors", Master dissertation, p.20, KyungHee University, 2015.
- [12] E. S. Park,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North Korean refugees' maladaptation in the workplace", Ph.D. dissertation, p.7, SoongSil University, 2014.
- [13] M. J. Park, "Study on policies on youths with immigrant backgrounds for social integration", Ph.D. dissertation, p.78, Sung Kyul University, 2015.
- [14] G. S. Kim, "The relation between social elimination and social adjustment by North Korean refugees", Master dissertation, p.2, CheongJu University, 2013.
- [15] The Institute of the Humanities for Unification, "The divided country Habitus and the way of communicate of South-North Korea", p.29, GCbook, 2015.
- [16] J. U. Yu, "Social Exclus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Affairs, Vol. 19, No. 1, pp.145-175, 2007.
- [17] S. Y. Aan, "Study on the support Policy for North Korean Defectors", Ph.D. dissertation, p.2, ChonNam University, 2013.
- [18] The Institute fo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Are the Youth in North Korea "the new generation", p.32, KyungNam University Press, 2015.

한 지 은(Han, Jee Eun)



- 2005년 2월 : 국민대학교 실내디자인과(디자인학사)
- 2010년 8월 : 홍대학교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 디자인경영(디자인석사)
- 2014년 3월 ~ 현재 : 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 과정 중
- 관심분야 : 사회통합, 문화
- E-Mail : cher320@naver.com

나 건(Nah, Ken)



- 1983년 3월 : 한양대학교 산업공학과 (공학사)
- 1958년 2월 : KAIST 산업공학과 (공학석사)
- 1996년 5월 : TUFTS University, (공학박사)
- 관심분야 : 인간공학, 디자인경영
- E-Mail : knahidas@gmail.com